코로나19의 전 지구적 대유행과 그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의 대응 형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에 따른 각국의 대처 상황, 우리나라의 주변을 둘러싼 국제 정세 등을 보면서, 국가 지도자와 기업 대표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한다. 사실 이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과거 왕조시대에도 군주의 리더십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라졌다.

따지고 보면 유학은 리더십을 다루는 제왕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국내에선 그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주로 동양철학이나 사학에서만 다루었지, 경영학이나 행정학에서는 서양의 학문을 너무 중시한 탓도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자칭 세계의 중심이라 자부하던 미국과 유럽인들의 민낯을 보면서, 그들이 답을 갖고 있다고 열심히 추종하던 이른바 '주변부'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한 일이 많았다.

지금까지 주변 세계에 머물러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그들보다 탁월한 선택과 선방을 한 우리나라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사실 이런 조짐은 코로나19 이전부터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걸 감지한 사람은 극소수였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 왔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있기까지의 우리 문화 저변에는 유학의 역할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문화의 한 축인 유교문화를 진지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리더십의 성격을 띤 유학의 인재 양성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대학』에 "효도는 임금을 섬기는 방법이고, 공경은 어른을 섬기는 방법이며, 자애는 여러 사람을 부리는 방법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런 가정교육의 영향력이 사회적 규범 실천의 행위로 연결된다고 여겼다. 바로 그것은 수신修身이라는 부모의 모범에서 가정교육이 포함된 제가齊家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대의 가정교육에 옛날의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자는 말은 아니

다. 현대에 맞는 유교식 정신을 살리면, 21세기에 세계를 선도할 한국인다운 세계인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서는 이런 배경에서 기획되었다. 케케묵은 옛날식 교육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전통의 장점을 살린 가정교육론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겠다.

2021. 09

율곡학 콘텐츠 개발과 국제적 확산 사업단장

최영진

가정교육을 리더십과 연결하는 일을 혹자는 생뚱맞은 일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 여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 과거의 가정교육은 부모의 가르침이나 훈계 때로는 모범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것이 지금 한국인의 기본 바탕이 되었다.

그런데 21세기는 디지털 혁명과 인터넷 연결, 인공지능 기술 등의 발달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이제 미래사회는 한 국가 한 지역 단위의 삶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코로나19 세계적 팬데믹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다고 할까? 인터넷 기술로 이제 사람들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네트워크상에서 회의하고 강의를 듣고 업무를 보는 일이 예사가 되어버렸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마치 이웃집에서 생긴 일처럼 동시에 알 수 있다. 또한 이미 사람들은 가상 세계에서 서로 만나고 경제활동도 한다.

이런 초연결 사회에서 고립이란 불가능하고, 경제든 교육이든 문화든 또 무엇이든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공존

함으로써 어느 것이 더 우월하고 어느 것이 중심이라는 관념이 무색하게 되었다. 이 말은 당신과 당신 자녀의 가치관과 문화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그래서 과거식 가정교육은 통하기 힘들다. 아무리 부모가 모범을 보인다고 해도 문화와 가치관이 다르다면 영향을 미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점이 미래를 위한 가정교육에 리더십을 적용한 배경이다. 리더십은 계속 변천한다. 현대의 리더는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를 포용하고 진정성 있고 성실한 태도로서 구성원들의 신뢰를 받아야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어쩌면 현대의 훌륭한 리더에게는 과거의 성인聖人과 같은 역할이 요구된다.

이런 고민 끝에 '온고지신'하는 마음으로 율곡 선생의 가정교육론을 현대의 리더십 이론에 접목하여 재해석하였다. 유학 자체가 수기치인으로서 리더십 이론의 성격이 강하므로, 현대에 적용하는 데 무리는 없었다. 다만 전통 가운데 현대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은 과감히 배제하

고, 율곡 선생의 가정교육론과 각종 개혁 사상 및 선조에게 올리는 여러 글 가운데서, 현대적 관점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발굴하여 재해석하고 적용하였다.

얼핏 보면 견강부회하는 감이 없지 않으나 이는 현대의 리더십과 유학과 가정교육이라는 서로 다른 세 분야를 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그만 잘못으로 봐주면 필자로서 큰 위안이 되겠다. 게다가 교육 대상의 층이 워낙 두터워, 한 권의 책으로 해당 영역마다 집중이 어려운 일반적 진술이라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

아무쪼록 좋은 가정에서 좋은 인성과 능력을 지닌 인재를 많이 배출하여, 미래의 낯선 세상에서 개인도 행복하고, 동시에 선진국다운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크게 떨치기를 희망해 본다.

2021.09

이종란